



MVPR-2008-26

# VIP REPORT

2008. 8. 12.

## ■ 건국 60년 특집

: 선진국의 사례로 본 우리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장균, 백흥기, 이주량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선진국의 사례로 본 우리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

Executive Summary ..... 1

1. 한국의 산업구조 ..... 1

2. 선진국의 산업발전 분석 ..... 5

3.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 ..... 12

■ HRI 경제 지표 ..... 19

## 1. 한국의 산업구조

**(과정)**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짧은 시간 안에 1차 산업의 급격한 축소와 2차 산업의 확대를 경험하였다. 1차 산업은 1953년 47.3%에서 2007년 3%로 감소했지만 2차 산업은 같은 기간 10.1%에서 39.5%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2차 산업은 40%를 전후한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지만 3차 산업은 1995년 51.8%에서 2007년 57.6%로 꾸준히 높아졌다.

**(현황)**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의 비중은 3.41%, 2차 산업은 40.2% 그리고 3차 산업은 5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만을 놓고 본다면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들과의 비교는 상대적으로 그 발전단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료가 미비한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2차 산업 비중은 42.9%를 기록한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3차 산업 비중은 역시 55.4%를 기록한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OECD에 가입한 멕시코의 경우는 1차 산업 3.8%, 2차 산업 25.9% 그리고 3차 산업 70.1%로 우리나라와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2차 산업이 우리경제 전체의 성장, 수출 그리고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 우선 각 산업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최근 2차 산업이 3차 산업의 그것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990~1995년의 기간 동안 실질 GDP 성장에 대해 2차 산업은 34.5% 정도 기여한 반면에 3차 산업은 거의 1.8배인 61.89%를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5~2000년 기간에 들어와서는 2차 산업이 49.18%로 증가한 반면 3차 산업은 49.01%로 낮아져 이 둘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수출을 살펴보면 2차 산업의 역할이 더욱 돋보인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77.49%에서 2000년 81.82%로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20.34%에서 18.35%로 줄어들었다.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부문 역시 2차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산업별 수출률을 비교하면 2차 산업이 30.69%였던 반면 3차 산업은 7.26%에 불과하였다.

**(전망)** 고용상의 변화는 앞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확대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가리킨다. 고용에 있어서는 우리경제가 2차 산업이 아닌 3차 산업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추세는 IMF 위기를 거치면서 더 강화된 느낌이다. 1995년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 수가 412만 명이었으나 1998년 28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3차 산업은 1,053만 명에서 1,107만 명으로 취업자 수를 크게 늘렸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아직은 2차 산업에 있지만 3차 산업으로 생산과 고용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2. 선진국의 산업발전 분석

(분석의 대상)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아보는데 있어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 일본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2007년 구매력(PPP)으로 총 GDP를 평가했을 경우 미국이 14조 3,800억 달러로 2위, 일본이 4조 2,900억 달러로 4위, 독일이 2조 8,100억 달러로 6위 그리고 영국이 2조 1,370억 달러로 7위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1위는 14조 3,800억 달러의 EU, 3위는 6조 9,910억 달러의 중국 그리고 5위는 4조 2,900억 달러의 인도가 차지하였다.

(공통점)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 일본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선진화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3차 산업의 비중 강화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2005년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산업 구성은 1차가 1.5%, 2차 25.9% 그리고 3차 7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3차 산업의 비중이 이보다 약간 높았고 반대로 2차 산업의 비중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3차 산업의 비중이 약간 낮고 반대로 2차 산업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미국과 영국은 상품교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적자를 그러나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2006년 기간의 평균적인 상품교역수지를 살펴보면 미국은 세계최대인 8,057억 달러의 적자를 그리고 영국은 그보다는 작지만 세계2위 수준인 1,35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교역으로 시각을 돌리면 사정이 정반대가 된다. 미국은 같은 기간 평균적으로 7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 뒤를 486억 달러의 흑자를 올린 영국이 뒤따랐다.

(독일과 일본) 독일과 일본은 서비스교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적자를 그러나 상품교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교역에 있어 독일은 2004~2006년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504억 달러의 적자를 그리고 일본도 29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규모 면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상품교역을 살펴보면 독일이 2,0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그리고 일본도 85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규모 면에서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 vs 독일·일본) 미국과 영국에서는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3차 산업으로 이동한 반면에 독일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2차 산업에 기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이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이지만 국가경쟁력의 구조가 같은 것은 아니다. 상품교역수지가 2차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서비스 교역 수지가 3차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간주한다면 이들 최선진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을 한 집단으로 그리고 독일과 일본을 또 다른 집단으로 하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미국과 영국이 본격적으로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은 세계경제의 개방 확대와 맞물린다. 미국과 영국에서 서비스 교역수지에 있어

뚜렷한 흑자증가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다. 반면 독일과 일본이 2차 산업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던 것도 이 시기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독일과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상품 교역에 있어서 큰 규모로 흑자폭을 늘려 나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과 영국은 이 부문에서 뚜렷한 적자 증가를 경험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1990년 1,537억 달러에서 2005년 8,280억 달러의 적자로 15년 사이에 무려 5배가 넘는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산업구조변화 모형)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3차 산업으로 국제경쟁력의 이전을 가져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의 두 가지 유형이 발견된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분명 2차 산업의 대폭적인 비중감소와 3차 산업의 대폭적인 비중증가를 경험한 국가들이고 산업구조면에서 현재 이들 간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3차 산업의 비중 증가가 3차 산업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의 재편을 가져왔지만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2차 산업이 중심이 된 국제경쟁력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통점	차이점
미국·영국 유형	· 산업구조의 고도화: 1차 산업 미미, 2차 산업의 비중 감소, 3차 산업의 비중 증가	· 국제경쟁력이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동
독일·일본 유형		·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2차 산업 중심

### 3.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

(수정 독일·일본 모델의 추구)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미국·영국과 독일·일본의 유형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곧,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경제 앞에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로 던져졌다. 2006년을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160억 달러의 흑자를 그러나 서비스 부문에서는 187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위의 질문은 우리경제가 독일과 일본처럼 3차 산업의 비중 증가와 상관없이 국제경쟁력을 2차 산업 중심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과 영국처럼 3차 산업의 비중증가를 국제경쟁력의 3차 산업 중심으로의 이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의 두 가지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일단 2차 산업과 3차 산업 모두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처럼 세계경제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은 분명 2차 산업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들 나라들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관련된 시장의 확대가 뒤따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산업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세계의 새로운 시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2차 산업의 과제)** 국제경쟁력을 2차 산업 중심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제고와 제품의 '초 일류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006년의 경우 한국의 상품교역조건은 1.052 였던데 반해 독일은 1.255 그리고 일본은 1.116으로 나타났다. 이들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먼저 제조업에서의 생산성을 높여 같은 규모의 수입품을 가지고 더 많은 수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분야에서 생산성 곧, 노동자 한 사람당 부가가치는 33,666달러로 미국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은 55,215달러 그리고 일본은 77,945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는 우리경제가 만들어내는 수출품의 값을 지금까지 보다 더 받는 것이다. 이는 전 상품의 '초 일류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2005년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상품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급품과 저가품이 증가제품을 몰아내는 "시장양극화(market polarization)" 현상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3차 산업의 과제)**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물류와 같이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서비스 시장도 Anglo-Saxon계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반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M&A 시장에서 금융상의 자문을 제공한 투자은행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Citigroup과 JP Morgan이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20위까지를 살펴보면 아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은 홍콩의 HSBC와 중국의 China International Capital 단 2곳뿐이었으며 일본계는 하나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Anglo-Saxon계가 60%인 12개를 차지하였다. 일본 국내 시장에서도 이들의 활약이 점차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해 서비스하는 물류 산업의 경우는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tune의 Global 500에서 Anglo-Saxon계 해운기업을 단 한 곳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항공화물 분야에서는 한국의 대한항공이 2006년에는 세계 1위의 실적을 올렸으며 10위 안에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의 창출)** 경제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류의 발전경험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는 농업, 어업, 임업 그리고 축산업 정도가 산업이었지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이 추가되었고 이후 서비스업이 대표하는 3차 산업이 더해진 형태를 보였다. 이는 지금 익숙한 산업구조가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하는 것임을 의미하며 새로운 산업의 추가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20세기에 들어와 1차 산업혁명에는 뒤쳐졌지만 2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주도를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서 우뚝 선 과거 미국의 경험은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IT, BT, NT에 서비스를 융합하는 실험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이를 주도하는 것은 분명 어렵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lt;선진국의 사례로 본 우리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gt;

## 한국의 산업구조

과정	- 짧은 시간 안에 1차 산업의 급격한 축소, 2차 산업의 확대를 경험
현황	- OECD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낮음
경쟁력	- 경제 전체의 성장, 수출 그리고 세계화를 2차 산업이 주도
전망	-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확대

## 선진국의 산업발전

대상	- 2007년 구매력으로 평가한 총 GDP 2위 (미국), 4위 (일본), 6위 (독일), 7위 (영국)
공통점	-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 일본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
미국과 영국	- 미국과 영국은 상품교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적자 - 그러나 서비스교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흑자
독일과 일본	- 독일과 일본은 서비스교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적자 - 그러나 상품교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흑자

## 미국·영국 vs 독일·일본

유형	공통점	차이점
미국·영국	- 산업구조 고도화: 1차 산업 미미, 2차 산업의 비중 감소, 3차 산업의 비중 증가	- 국제경쟁력이 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
독일·일본		-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2차 산업 중심

##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

'수정 독일·일본 모델'의 추구	- 앞으로 산업구조는 미국·영국과 독일·일본의 유형을 절충하는 방향이 바람직
2차 산업의 과제	- 국제경쟁력을 2차 산업 중심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제고와 제품의 '초 일류화' 등의 노력이 필요
3차 산업의 과제	- 사람에 대한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물류와 같이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부문을 육성하는 것이 유리
새로운 산업의 창출	- 경제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



# 선진국의 사례로 본 우리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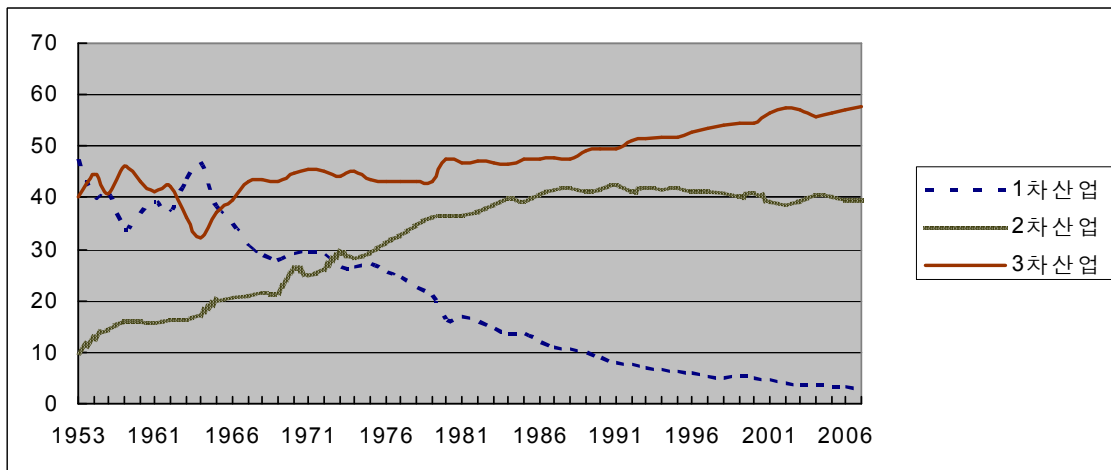
## 1. 한국의 산업구조

○ 짧은 시간 안에 1차 산업<sup>1)</sup>의 축소, 2차 산업의 확대를 경험

- 1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 2차 산업은 큰 증가 후 안정, 3차 산업은 꾸준히 증가

- 1차 산업은 1953년 47.3%에서 2007년 3%로 감소, 2차 산업은 같은 기간 10.1%에서 39.5%로 증가
- 1990년대 이후 2차 산업의 비중은 40%대에서 변화가 없지만 3차 산업은 1995년 51.8%에서 2007년 57.6%로 꾸준히 높아짐

<산업별 GDP 구성의 변화 (%)>



1) 클라크(Clark)의 분류법에서 1차 산업에는 농업, 목축업, 수산업, 임업 및 수렵, 2차 산업에는 광업, 제조업, 토목 건설업, 전기가스업 및 수도업, 3차 산업에는 금융, 상업, 통신, 유통, 운수, 행정, 호텔, 요식업 등이 포함

<1, 2 그리고 3차 산업의 대략적인 특징>

분류	특징
1차 산업	지표(地表)나 지하(地下)로부터 자원을 채취하는 활동
2차 산업	채취한 자원을 제조·가공하는 활동
3차 산업	1차 및 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

선진국의 사례로 본 우리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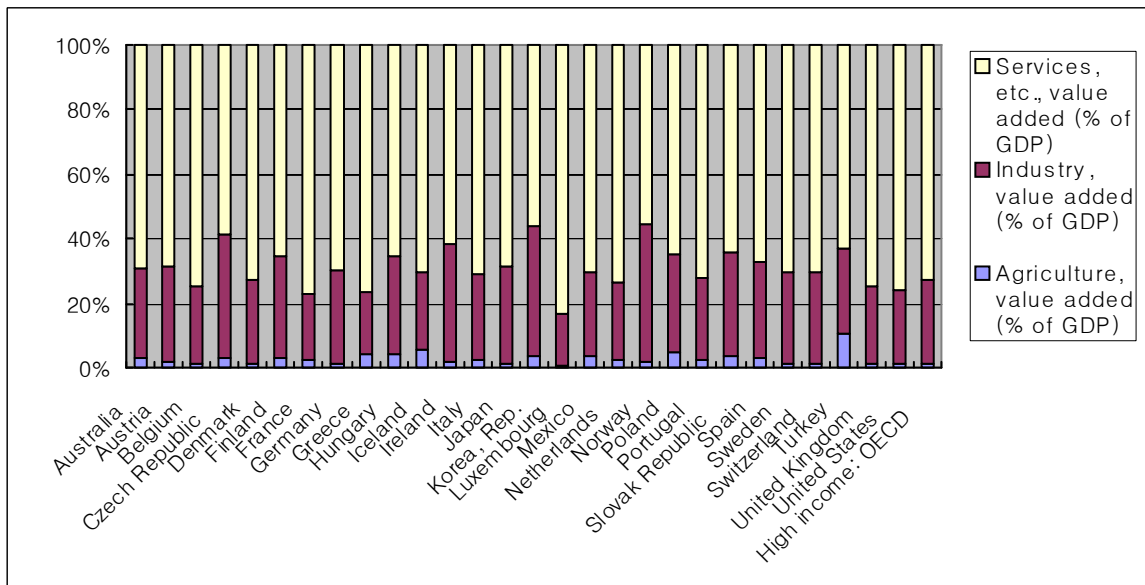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55	44.5	12.6	39.3
1960	36.8	15.9	43.2
1965	38	20	37.2
1970	29.2	26.1	44.7
1975	27.1	29.2	43.6
1980	16.2	36.6	47.3
1985	13.5	39	47.4
1990	8.9	41.5	49.5
1995	6.3	41.8	51.8
2000	4.9	40.8	54.4
2005	3.4	40.2	56.3

자료: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2차 산업의 비중이 아직 높은 한국경제

- 2005년을 기준으로 OECD국가들(캐나다와 뉴질랜드 제외)과 비교하였을 경우 2차 산업의 비중은 높고 3차 산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차 산업의 비중은 40.2%로 42.9%의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3차 산업의 비중은 56.3%로 55.4%를 기록한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

<2005년 OECD국가들의 산업별 GDP구성 비교>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 (%)
미국	1.18	22.8	75.9
영국	0.94	24.2	74.7
독일	0.98	29.3	69.6
프랑스	2.28	20.6	77.0
일본	1.5	29.8	68.6
한국	3.41	40.2	56.3
노르웨이	1.59	42.9	55.4
체코	2.9	38.3	58.7
멕시코	3.8	25.9	70.1

자료: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 ○ 성장과 수출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를 지탱하는 2차 산업

- 2차 산업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최근 3차 산업을 앞섬

<부분별 성장기여도 (실질 GDP 기준) (%)>

년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1975~80	-4.87	1.11	37.39	66.37
1980~85	10.05	0.38	30.95	58.61
1985~90	0.34	0.06	35.58	64.02
1990~95	2.59	1.02	34.50	61.89
1995~2001	2.07	-0.78	49.96	49.01

자료: 김동석 (2003), 『산업연관표 시계열화를 통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1990~95년 기간 동안 실질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광업과 제조업으로 구성된 2차 산업은 34.5%였던 반면 3차 산업은 거의 1.8배 수준인 61.89%
- 그러나 1995~2001년 기간 동안 2차 산업은 49.18%로 크게 증가하여 3차 산업의 49.01%보다 앞선 것으로 밝혀짐

- 여전히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2차 산업

-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1985년 77.49%에서 2000년 81.82%로 늘어난 반면, 서비스업은 20.34%에서 18.35%로 줄어들음

<부문별 수출 구성비 (%)>

년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1985	2.03	0.14	77.49	20.34
1990	1.58	0.13	79.84	18.81
1995	0.83	0.05	80.56	18.56
2000	0.30	0.03	81.32	18.35

자료: 김동석 (2003), 『산업연관표 시계열화를 통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2차 산업

- 1995년과 2000년의 산업별 수출률을 비교할 경우 22.83%에서 30.69%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5.14%에서 7.26%로 증가하는데 그쳐 제조업이 경제의 세계화를 주도

<산업별 수출률(%)>

년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1985	3.58	1.30	20.81	6.59
1990	3.68	1.97	20.29	5.20
1995	2.82	1.42	22.83	5.14
2000	1.83	1.69	30.69	7.26

자료: 최영락 (2003),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진화와 과제, 물리학과 첨단기술, 5월.

○ 고용을 지탱하고 있는 3차 산업

- 서비스업이 담당하는 고용에 있어서의 역할이 최근 더욱 증대

- IMF 사태를 전후로 제조업의 총 취업자 수가 1995년 412만에서 1998년 28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1,053만에서 1,107만 명으로 증가

<부문별 총취업자 수 (명)>

년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1985	3,333,390	154,898	2,981,252	6,624,800	13,094,340
1990	2,945,690	80,701	4,351,499	8,511,540	15,888,800
1995	2,497,690	45,220	4,122,495	10,531,425	17,196,644
1998	2,349,528	23,527	2,801,991	11,070,050	16,245,096

자료: 김동석 (2003), 『산업연관표 시계열화를 통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2. 선진국의 산업발전 분석

### ○ 산업구조의 고도화 곧, 3차 산업의 강화는 경제선진화와 표리(表裏)관계

- 경제선진화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3차 산업의 비중을 강화시키며 이는 모든 선진국들에서 목격
  - 2005년의 GDP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OECD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1차 산업은 1.5%, 2차 산업은 25.9% 그리고 3차 산업은 72.5%를 차지
  - 미국과 영국에서 3차 산업비중이 OECD평균보다 약간 높고 반대로 2차 산업 비중은 약간 낮았지만 독일과 일본에서는 3차 산업비중이 이보다 약간 낮고 반대로 2차 산업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sup>2)</sup>

<2005년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별 GDP구성 비율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미국	1.1	22.8	75.9
영국	0.9	24.2	75.9
독일	0.9	29.3	69.6
일본	1.5	29.8	68.6
OECD국가	1.5	25.9	72.5

자료: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 ○ 2차 산업에서 최고수준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독일과 일본

- 2차 산업의 비중이 작지만 독일과 일본은 제조업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상품교역수지 추이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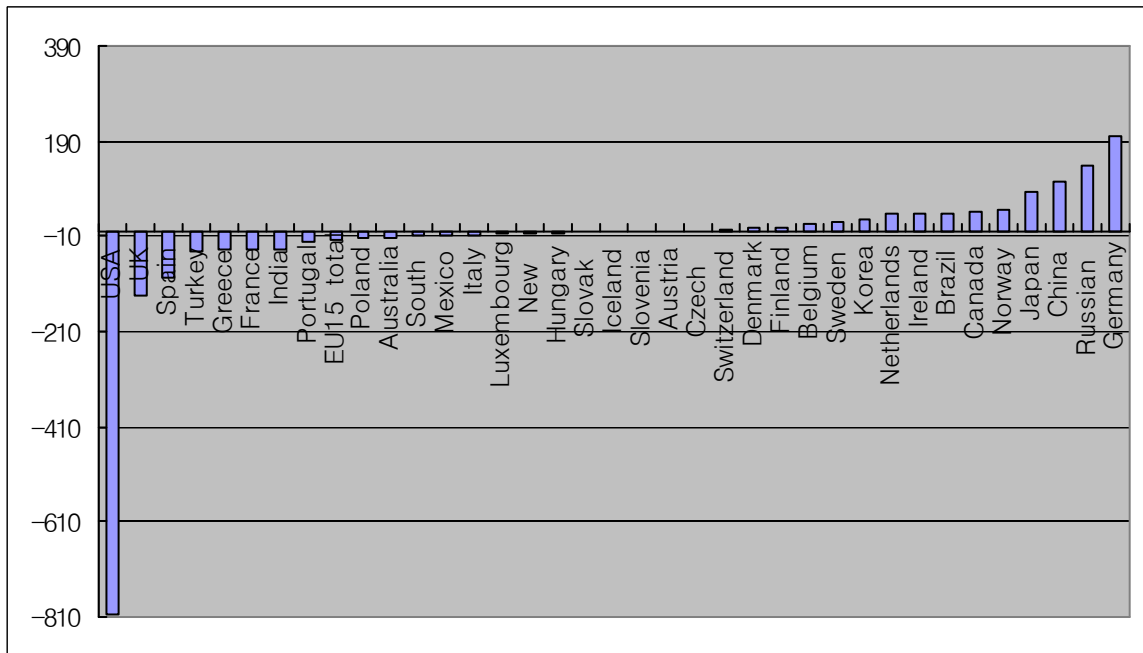
	2004	2005	2006
미국	-7,074	-8,280	-8,820
영국	-1,131	-1,314	-1,620
독일	1,936	2,004	2,068
일본	1,105	791	677

자료: OECD (<http://www.oecd.org>).

2) 2007년 기준 구매력(PPP)로 추정된 총GDP로 보았을 때 미국이 14조 3,800억 달러로 2위, 일본이 4조 2,900억 달러로 4위, 독일이 2조 8,100억 달러로 6위 그리고 영국이 2조 1,370억 달러로 7위를 차지 (CIA World Fact Book)

- 2004년부터 2006년간의 평균적인 상품교역수지를 보면 독일이 2,0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850억 달러로 4위를 차지
- 반면에 미국은 8,057억 달러의 곧, 세계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영국이 1,354억 달러의 적자로 2위를 달림

〈2004-2005,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상품교역수지 (10억 달러)〉



자료: OECD (<http://www.oecd.org>).

○ 3차 산업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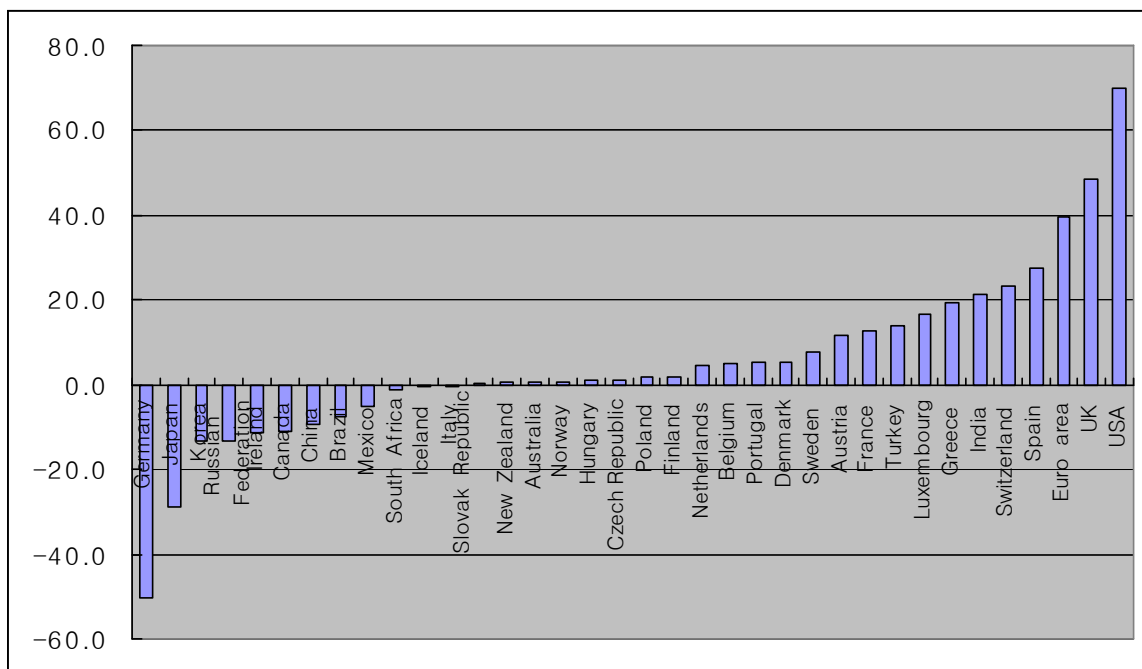
- 3차 산업의 비중이 각각 75%와 76%를 차지하는 미국과 영국은 서비스업에 있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보유
- 2004년부터 2006년간의 평균적인 서비스교역수지를 보면 미국이 7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이 486억 달러로 2위를 차지
- 반면에 독일은 504억 달러의 적자 그리고 일본이 290억 달러의 적자로 이 부문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서비스교역수지 추이 (억 달러)>

	2004	2005	2006
미국	575	728	797
영국	475	448	534
독일	-512	-520	-479
일본	-390	-279	-201

자료: OECD (<http://www.oecd.org>).

<2004~2005,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서비스교역수지 (10억 달러)>



자료: OECD (<http://www.oecd.org>).

- 세계의 주요 서비스 시장에서 미국과 영국기업들의 압도적인 우위가 목격
  - 2008년 상반기 전 세계 M&A 시장에서 영국의 법률 회사인 Linklater가 가치로 평가하여 3,817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 123건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1위를 차지
  - 실적기준 상위 20위권의 주요 법률회사들의 본사소재지를 살펴보면 미국이 8개, 영국이 5개, 호주가 4개, 캐나다가 2개 그리고 영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에 걸쳐있는 다국적 회사가 1곳으로 집계

<2008년 상반기 전 세계 M&A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법률회사들과 그 실적>

순위	회사명	본사위치	M&A규모 (by value) (10억 달러)	건수 (건)
1	Linklaters	영국	381.7	123
2	Skadden Arps	미국	372.5	86
3	McCarthy Tetrault	캐나다	352.5	39
4	Sullivan & Cromwell	미국	337.2	57
5	Allen & Overy	영국	306.6	99
6	Cravath Swaine & Moore	미국	276.6	27
7	Slaughter and May	영국	265.9	29
8	Herbert Smith/Gleiss Lutz/Stibbe	영국+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252.6	54
9	Davies Ward Phillips & Vineberg	캐나다	244.8	17
10	Allens Arthur Robinson	호주	239.6	22
11	Freehills	호주	233.9	34
12	Lovells	영국	224.5	45
13	Blake Dawson	호주	215.5	26
14	Johnson Winter & Slattery	호주	211.0	4
15	Gibson Dunn & Crutcher	미국	178.7	48
16	Freshfields Bruckhaus	영국	143.7	120
17	Simpson Thacher & Bartlett	미국	121.6	46
18	Latham & Watkins	미국	119.4	112
19	Hunton & williams	미국	115.1	15
20	Sutherland Asbill & Brennan	미국	107.9	4

자료: Here Is The City News (<http://news.hereisthecity.com>).

<2007년 1월 1일 현재 세계 10대 호텔운영 기업>

순위	회사명	본사위치	호텔 수 (개)	객실 수 (개)
1	Intercontinental HG	영국	3,741	556,246
2	Wyndham Worldwide	미국	6,473	543,237
3	Marriot Int.	미국	2,775	502,089
4	Hilton Corp.	미국	2,901	497,738
5	Accor	프랑스	4,121	486,512
6	Choice	미국	5,316	429,401
7	Best Western	미국	4,164	315,401
8	Starwood Hot.& Res.	미국	871	265,598
9	Carlson Hospitality	미국	932	145,933
10	Global Hyatt	미국	733	141,011

자료: The 2006 World Ranking; 10 Largest Hotel Groups and 20 Largest Brands  
(<http://www.hotel-online.com>).



-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세계 10대 호텔 운영기업을 살펴보면 영국과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각각 1개씩이고 나머지 8개는 모두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2008년 상반기 전 세계 M&A에 대해 금융상의 자문을 제공한 투자은행들과 그 실적>

순위	회사명	본사위치	M&A 규모 (by value) (10억 달러)	건수 (건)
1	JP Morgan	미국	549.8	131
2	Goldman Sachs	미국	542.8	115
3	Citigroup	미국	513.5	107
4	Deutsche Bank	독일	444.3	74
5	Credit Suisse	스위스	436.7	101
6	UBS	스위스	393.1	128
7	Morgan Stanley	미국	390.4	99
8	Merrill Lynch	미국	362.8	106
9	Rothschild	영국	312.3	107
10	Lehman Brothers	미국	304.7	62
11	Lazard	미국	275.2	76
12	BNP Paribas	프랑스	260.9	38
13	Macquarie Group	호주	225.4	42
14	SG	프랑스	223.1	15
15	HSBC Bank	홍콩	218.9	23
16	Gresham Advisory Partners	호주	212.1	5
17	Centerview Partners	미국	109.9	4
18	ABN AMRO	네덜란드	61.8	48
19	China International Capital	중국	44.1	7
20	Banc of America Securities	미국	43.8	28

자료: mergermarket (<http://www.mergermark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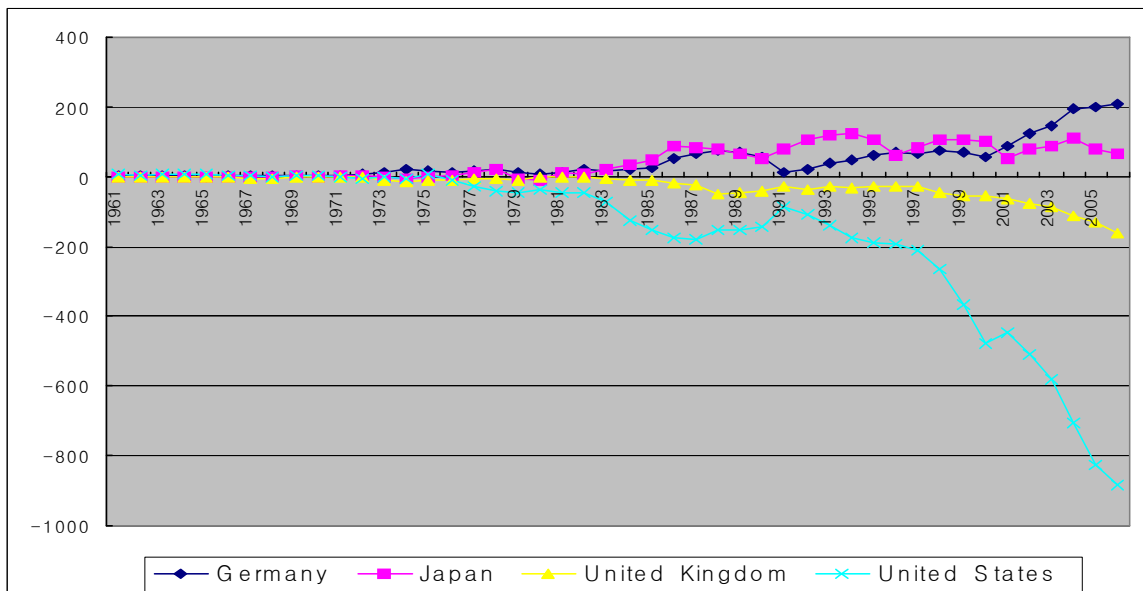
- 2008년 상반기 세계 M&A 시장에서 금융상의 자문을 제공한 투자은행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의 JP Morgan이 가치로 평가하여 5,498억 달러의 규모의 131건에 이르는 M&A에 관여하여 1위를 차지
- 그 다음으로 미국의 Goldman Sachs가 5,428억 달러(115건)로 2위, 역시 미국의 Citigroup이 5,135억 달러(107건)로 3위에 오름
- 상위 20위권에 속한 은행들의 본사 소재지를 살펴보면 미국이 9개,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호주가 각각 2개, 영국, 네덜란드, 독일, 홍콩 그리고 중국이 각각 1개를 차지하여 미국계 투자 은행들의 우위가 확연

○ 3차 산업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이 재편된 미국과 영국 vs 그렇지 못한 독일과 일본

- 세계경제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독일과 일본은 상품교역수지상의 대폭적인 흑자증가를 반면 미국과 영국은 서비스교역수지상의 대폭적인 적자증가를 경험

-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상품부문의 교역에 있어 대규모 흑자시현
- 미국과 영국에서는 같은 시기 상품교역에 있어서 적자폭이 크게 증가

<독일, 일본 그리고 영국, 미국의 상품교역 수지 추이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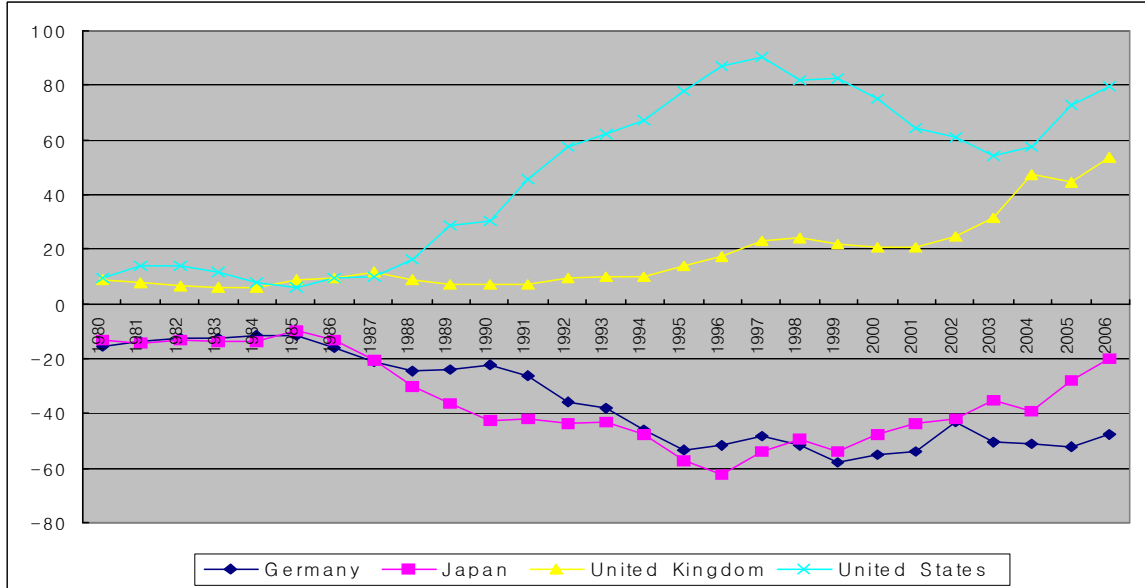


	1961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독일	1.7	0.4	4.4	15.8	5.7	25.7	57.1	59.6	54.8	200.4
일본	n.a.	0.3	0.4	-2.1	-10.3	48.1	52.1	107.1	99.6	79.1
영국	-2	-2.9	-2.4	-9.5	-3.5	-8	-39.9	-25.9	-56.6	-131.4
미국	6.3	5.6	2.6	9.2	-37.4	-153.7	-142.3	-187.9	-477.7	-828

자료: OECD (<http://www.oecd.org>).

- 미국과 영국은 90년대 이후 서비스교역에 있어 막대한 흑자 달성 시작
-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 서비스교역에 있어 적자 급증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독일의 서비스교역 수지 추이 (10억 달러)>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미국	9.22	7.54	30.2	77.8	74.9	72.8
영국	9.07	6.02	7.3	14.1	20.8	44.8
독일	-15.49	-11.47	-22.5	-53.4	-55	-52
일본	-13.34	-9.6	-42.7	-57.3	-47.6	-37.9

자료: 1) WTO (<http://www.wto.org>), 1980~1989년, 2) OECD (<http://www.oecd.org>), 1990~2006년.

- 미국과 영국 vs 독일과 일본

- 두 유형 모두 산업구조의 고도화 곧, 2차 산업의 대폭적인 비중감소와 3차 산업의 비중 증가를 특징으로 함
-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3차 산업의 비중 증가가 3차 산업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의 재편을 가져왔지만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2차 산업이 중심이 된 국제경쟁력의 틀을 유지

<미국·영국 유형 vs 독일·일본 유형>

	공통점	차이점
미국·영국 유형	· 산업구조의 고도화: 1차 산업 미미, 2차 산업의 비중 감소, 3차 산업의 비중 증가	· 국제경쟁력이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동
독일·일본 유형		·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2차 산업 중심

### 3.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직면하여 대두되는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 독일·일본 모델'이 대안

- 우리나라는 상품교역에서는 흑자 그러나 서비스 교역에서는 적자 기록
  - 2006년 제조업은 3,254억 달러를 수출하고 3,093억 달러를 수입하여 약 16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반면 518억 달러의 서비스를 수출하였지만 706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수입하여 약 187억 달러의 적자를 봄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 수지>

	수출 (10억 달러)	수입 (10억 달러)	수지 (10억 달러)
상품	325.457	309.379	16.077
서비스	51.873	70.636	-18.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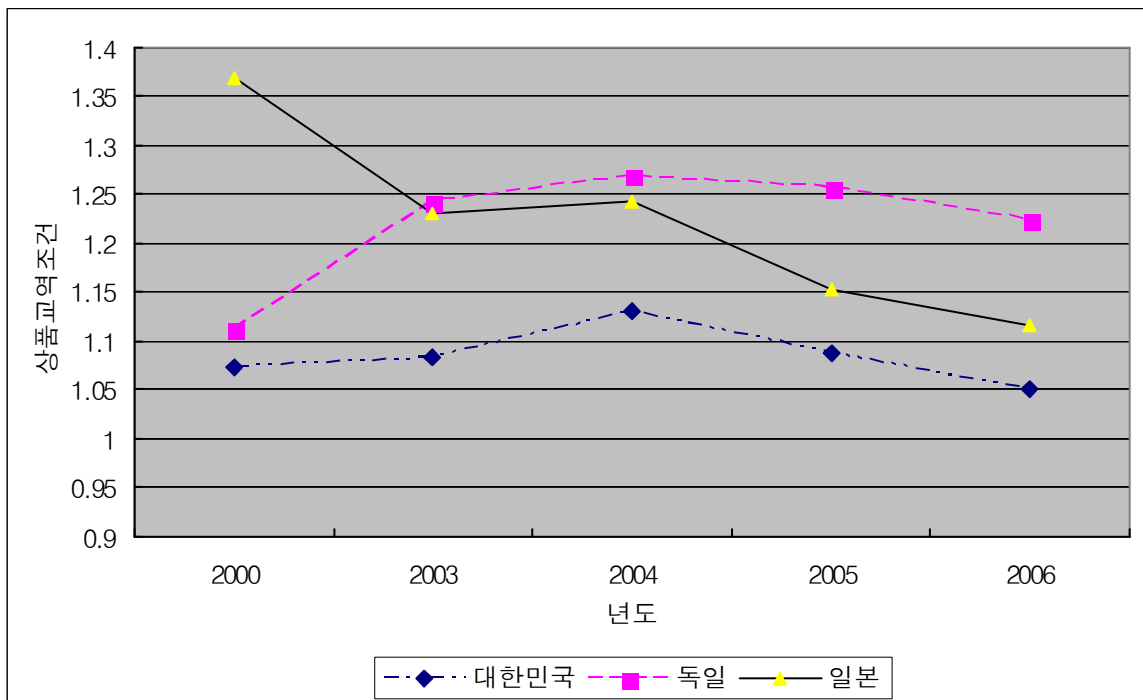
자료: OECD (<http://www.oecd.org>).

- 3차 산업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경제의 국제 경쟁력은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
  - 독일과 일본처럼 3차 산업의 비중 증가와 관계없이 국제경쟁력을 2차 산업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 미국과 영국처럼 3차 산업의 비중 증가가 3차 산업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하는 '수정 독일·일본 모델'의 추진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
  - 독일과 일본처럼 세계경제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은 2차 산업에 기초
  - 경제발전에 따라 세계 각국의 3차 산업의 성장과 이에 바탕을 둔 시장이 확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

○ 국제경쟁력을 2차 산업 중심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와 제품의 '초 일류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

- 상품의 교역조건을 비교하면 한국은 독일이나 일본과 차이를 보임
  - 2006년의 경우 한국은 1.052였던데 반하여 독일은 1.225 그리고 일본은 1.116을 기록하여 이들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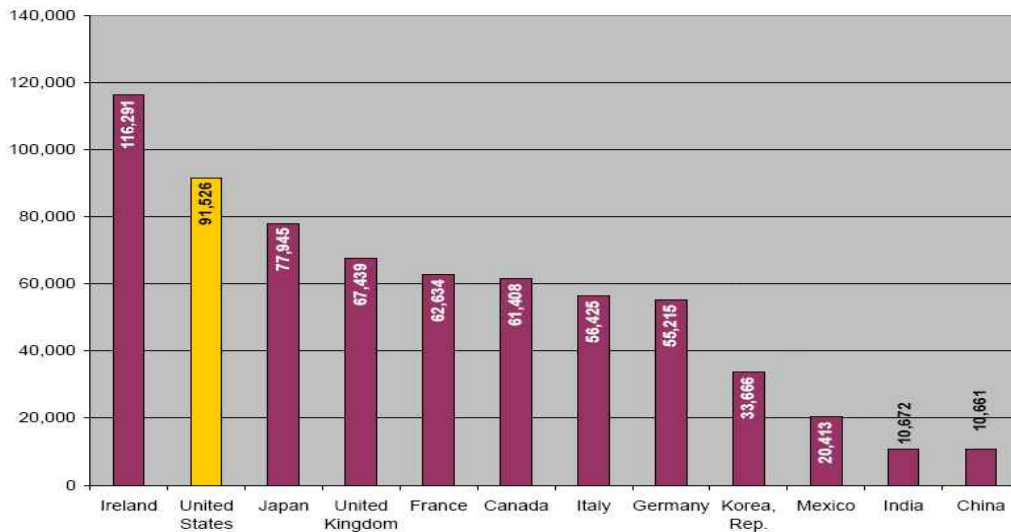
<한국, 독일 그리고 일본과의 상품교역조건 비교>



자료: OECD (<http://www.oecd.org>).

- 제조업에서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같은 규모의 수입품을 가지고 더 많은 수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전환 추진
  - 2000년을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곧, 노동자 한 사람 당 부가가치는 33,666달러로 미국의 37% 수준
  - 아일랜드가 116,291달러로 1위를 차지하였고 독일은 55,215달러 그리고 일본은 77,945달러를 기록

<2000년 기준 제조업 생산성 (노동자 한 사람당 부가가치) 비교 (달러)>



자료: Comparisons & Analyses of U.S. & Global Economic Data and Trends, SRI International, Mar 30, 2004.

- 수출품을 '초 일류화'하여 수출 단가를 높이는 노력 필요

- 2005년 McKinsey Quarterly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고급품과 저가품이 증가제품을 몰아내는 현상인 "시장 양극화(market polarization)"가 이미 전 산업에서 본격화 되었다고 주장<sup>3)</sup>

○ 국제경쟁력을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동시키는데 있어 사람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물류와 같이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서비스 시장도 주도하는 Anglo-Saxon계 투자은행
  - 미국의 Citigroup과 JP Morgan이 각각 가치로 평가해서 규모가 2,661억 달러(20건)와 2,633억 달러(20건)에 달하는 M&A와 관계하여 1위와 2위를 차지
  - 2008년 상반기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M&A시장에서 금융상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투자은행들을 살펴보면 상위 20개안에 아시아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China International Capital이 유일

3) Knudsen, Riiber, et al (2005), *The Vanishing Middle Market*, McKinsey Quarterly, issue 4.

<2008년 상반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일본 제외) M&A에 대해 금융상의 자문을 제공한 투자은행들과 그 실적>

순위	회사명	본사위치	M&A 규모 (by value) (10억 달러)	건수 (건)
1	Citigroup	미국	266.1	20
2	JP Morgan	미국	263.3	20
3	UBS	스위스	251.8	28
4	Rothschild	영국	241.5	10
5	Lazard	미국	233.9	10
6	Morgan Stanely	미국	233.8	20
7	Credit Suisse	스위스	228.4	13
8	Merrill Lynch	미국	226.1	19
9	Goldman Sachs	미국	223.6	18
10	Deutsche Bank	독일	223.5	16
11	Macquarie Group	호주	222.8	27
12	BNP Paribas	프랑스	217.1	13
13	HSBC Bank	홍콩	213.6	5
14	Gresham Advisory Partners	호주	212.1	5
15	SG	프랑스	210.8	1
16	Lehman Brothers	미국	55.4	13
17	China International Capital	중국	44.1	7
18	Caliburn Partnership	호주	23.9	6
19	PWC Corp Fin	미국	7.9	20
20	ABN AMRO	네덜란드	6.1	10

자료: mergermarket (<http://www.mergermarket.com>).

<2008년 상반기 일본시장의 M&A에 대해 금융상의 자문을 제공한 투자은행들과 그 실적>

2007년 순위	2008년 상반기 순위	회사명	본사위치	M&A 규모 (by value) (10억 달러)	건수 (건)
2	1	Nomura	일본	17.0	37
15	2	UBS	스위스	10.5	6
13	3	Goldman Sachs	미국	8.5	6
1	4	Mizuho Financial Group	일본	5.7	24
11	5	KPMG Corp Fin	네덜란드+미국	5.6	13
10	6	Mitsubishi UFJ Securities Co	일본	5.0	19
-	7	Religare Capital Markets	영국	4.5	1
7	8	Daiwa Securities Group	일본	4.0	23
4	9	Citigroup	미국	2.9	16
-	10	SBI Holdings	일본	2.7	1

자료: mergermarket (<http://www.mergermarket.com>).

- 일본시장에서도 Anglo-Saxon계 투자은행들은 두드러진 역할
  - 2008년 상반기 일본시장에 이루어진 M&A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실적을 가지고 평가했을 경우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상위10위 안에 2개 포함
  - 영국과 다른 나라의 기업과 합작한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Anglo-Saxon계 은행은 10개 중에 4개
  
- 반면에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는 물류 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Anglo-Saxon계 기업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
  - 2008월 7월에 발표된 Fortune지의 Global 500에 오른 세계적인 물류기업은 Maersk, Nippon Yusen, China Ocean Shipping 그리고 Mitsui OSK Lines로 이들의 본사 소재지는 각각 네덜란드, 일본,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미국과 영국의 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 2006년 기준 세계10대 화물항공사에 대한 통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 유럽과 북미 그리고 중동에 걸쳐 다양한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포함
  -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 86억 8천만 톤-킬로를 운항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독일의 Lufthansa, 싱가포르의 Singapore Airline Cargo 등이 뒤따랐으며 미국의 FedEx Express는 5위를 차지

<2008 Fortune Global 500에 오른 물류기업들>

순위	회사명	본사위치	매출 (10억 달러)	순이익 (10억 달러)	Global 500 순위
1	A.P. Moller-Maersk Group	덴마크	52.3	3.2	131
2	Nippon Yusen	일본	22.6	1.0	372
3	China Ocean Shipping	중국	20.8	3.6	405
4	Mitsui OSK Lines	일본	17.0	1.6	494

자료: Global 500 (<http://money.cnn.com>).

참고: 2008년 7월 21자 Fortune 기준.

- 해운과 항공화물운송과 같은 물류산업은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나 생산한 상품을 수송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2차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주도



<2006년 현재 세계 10대 화물항공사 (정기편 기준)>

순위	회사명	본사위치	실적 (톤-킬로미터)
1	Korean Air Cargo (대한항공)	대한민국	86억 8천만
2	Lufthansa Cargo	독일	80억 7천 7백만
3	Singapore Airlines Cargo	싱가포르	79억 9천 1백만
4	Cathay Pacific	홍콩	69억 1천 4백만
5	FedEx Express	미국	61억 3천 6백만
6	China Airlines	타이완	60억 9천 9백만
7	Air France	프랑스	58억 6천 4백만
8	Cargolux	룩셈부르크	52억 3천 7백만
9	Eva Air	타이완	51억 6천만
10	Emirates Airline	아랍에미리트	50억 2천 7백만

자료: World's Largest Airlines,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리적인 특성이 이 지역 물류에 있어서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유리한 요소
  - 한반도는 구매력(PPP)으로 평가한 2007년 추정 총 GDP 4위국가인 중국 (6조 9,910억 달러)과 5위인 일본 (4조 2,900억 달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을 통해서는 3위국가인 미국(13조 8,400억 달러)과 연결

○ 새로운 혁신적인 산업의 창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

- 경제전체의 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개척이 요구됨
  - 농·축산·임·어업이 유일한 산업이었던 시대로부터 제조업이 중심된 2차 산업이 추가된 시대로 그리고 이에 서비스업이 대표하는 3차 산업이 추가된 시대로 세계경제는 발전
  - 역사적으로 미국은 전기와 내연기관이 중심이 되었던 2차 산업혁명을 이끔으로써 영국을 재치고 경제 최선진국으로 등극<sup>4)</sup>
  - IT, BT, NT에 서비스업을 융합하는 실험을 통해 전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고 주도하려는 시도는 분명 어렵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

예상한 연구위원 (3669-4181, syeahk@hri.co.kr)

4) Mokyr, Joel (1998),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1870-1914*, Northwestern University, Aug.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1	5.0	4.9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8	4.7	3.5
	민간소비 (%)	7.9	-1.2	-0.3	3.6	4.5	4.5	3.4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6	4.0	4.3
	건설투자 (%)	5.3	7.9	1.1	-0.2	-0.1	1.2	2.8
	설비투자 (%)	7.5	-1.2	3.8	5.7	7.8	7.6	6.5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66	54	60	-1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46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5	3,715	4,33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4.1)	(16.6)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68	4,27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5.3)	(19.7)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3.8
	실업률 (%)	3.1	3.4	3.7	3.7	3.5	3.2	3.3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9	99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2	5.0